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48x34)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5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처음 마음으로	08	죄의 자성은 본래 없고 마음 따라 생겨난다.
숨어서 피는 꽃	13	고양이가 보배
자비의 등을 밝혀주세요	16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법정 스님 책 속의 책	18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따뜻한 이야기	20	어머니의 흰머리
내 마음속 풍경	22	가족의 의미
아름다운 마무리	26	5월 결연대상자 - 김정희(가명) 님
참교육 이야기	28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좋은가?
공감대화로 소통합니다	32	공감대화 네 번째 항목 '부탁'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36	아리랑 소고(小考)
시심청심	39	마지막 출근
향기나는 우체통	40	스승님 다음 생에도 여여(如如) 하시지요.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43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글·법 정(法 頂)

봄알이를 치르면서 밥 해먹기가 귀찮아 며칠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다. 한동안 방송이고 신문이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니, 마음이 그렇게 맑고 투명하고 편안할 수 없었다.

요 몇 해 동안 우리는 허구한 날 똑같이 소리 높이 외치고 짐겨 농성하고 짓부수며 불태우고, 걷어차며 두들기고 쏘아대며 잡아 가두는 소식만을 지겹도록 접해왔다. 이토록 흥흥하고 살벌한 장면만을 보고 들으면서 이 땅의 암울한 공기를 마셔온 우리들이다. 모처럼 산하 대지에 번지고 있는 싱그러운 봄의 신록과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건강하고 선량한 우리 이웃들을 가까이서 대하니, 생의 활기 같은 것이 내 안에서도 움트는 것 같았다.

우리 시대를 지탱하며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고 요즘 곰곰 생각해본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한낱 파도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파도는 바람이 불어야 일렁거리지, 그 자체로서는 움작할 수 없다. 파도의 밑바탕은 끝없이 괴어 있는 바다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다. 파도는 바람을 타고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바람이 자면 다시 바닷물로 잦아든다.

인류 역사상 한때의 바람을 타고 솟아났다가 소멸해버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정권들 또한 이 파도

와 같은 것들이다. 파도는 기상상태에 의해 일렁거리다가 잦아들지만, 바다는 시작도 끝도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다. 삶 그 자체에 충실한 기층민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시대를 지탱하며 떠받쳐주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다.

여수 어항단지 수협 공판장에서였다. 새벽 5시가 되자, 여기저기서 장화를 신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두벅두벅 모여들었다. 잠시 후 벨이 울리자, 고기 상자를 빙 둘러싸고 경매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구령에 맞추어 모자를 벗고 마주 보며 정중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혹은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에 이런 정중한 인사가 교환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중한 인사는 고사하고 막말로 하자면, 개 닭 쳐다보듯 스치고 지나치기 일췌 아닌가. 그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학문이 연마되고 진리탐

구가 행해지며 생산과 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입찰이 끝나자마자 곁에 늘어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필요한 고기 상자들을 저마다 챙겼다. 이윽고 트럭들이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고기 상자를 실어냈다. 새벽 바닷가에서 비릿비릿한 삶의 활기에 넘치는 우리 이웃들의 그 건강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이 땅의 이름 없는 주인이구나 싶었다.

전라북도 김제의 만경들에서였다.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 벌써부터 눈을 갈아 못자리판을 만드느라 이른 아침부터 들녘에는 여기저기서 일손들이 바빠 돌아갔다. 아침 안개 속에서 묵묵히 못자리판을 고르고 법씨를 뿌리는 우리 농부들의 모습에서 거룩한 성화를 대하는 것 같았다.

누가 그분들을 가리켜 흙의 노예라고 하는가. 어떤 정치꾼들이, 혹은 어떤 투기꾼들이 무슨 짓을 하건 말없이 흙을 일구어 씨 뿌리고 거두면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한 해 두 해 차곡차곡 쌓아기는 사람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양식을 생산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그들이 어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겠는가.

잠을 설쳐가며 시골에서 밤차로 올라와 꼭두새벽 동대문 의류 도매 시장에서 옷가지를 떼어다가 파는 우리 이웃들 또한 건강한 이 땅의 주인이다.

종로에서 을지로에서 또는 퇴계로에서 남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인 이른 아침 길거리에 나와 버려진 쓰레기와 휴지를 묵묵히 치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또한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런 분들은 사회 현실에 대해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뜻과 생각마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뜻과 생각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시대의 흐름

과 역사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영화 <간디>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사회운동이 되었건 간에 그 운동에 긍정적인 평가와 가치를 부여하려면 그 운동이 곧 개인의 인격형성과 이어져야 할 것이다. 목적 달성만을 위해 수단 방법을 도외시한 다며 그것은 결코 건전한 운동이 될 수 없고 인격 형성의 길일 수도 없다. 비폭력에 대해서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고 언어맞기만 하자.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저들(영국)이 저지른 불의를 제대로 보게 하자. 우리들이 겪은 비폭력 불복종의 고통은 마침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온다.”

간디는 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고 반격을 가하면 우리는 아만인이 되고 저들은 법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참고 견딘다면 저들이 아만인이 되고 신과 진리는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맞선다면 온 세계가 장님이 되는 길밖에 없을 거라고 하면서, 자신이 절망에 빠졌을 때 털고 일어선 그 극복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나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서나 진리와 사랑이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제도권의 음성적인 폭력이나 운동권의 양성적인 폭력을 가릴 것 없이 다 같이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눈앞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볼 때, 인류 역사는 술수와 폭력으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진리와 사랑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그 교훈을 거듭거듭 상기해야 한다.

나라의 다스림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물들 것 없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곧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맡은 소임에 한결같이 성실하게 임하면서 묵묵히 살아 가고 있는 수많은 선량한 서민들이 아팔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아달라는 말이다. 그들이 말이 없는 가운데 우리 사회와 시대를 지탱하며 만들어가는 소박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다. 1989

-탕빈 총만 중에서

법정스님 5주기 추모

전람회 **불일암 추억**

수필집 **법정 회상기**

불교 미술의 현대화를 화두로 정진해 오신 맑고 향기롭게 광주 본부장 고현 교수님의 '불일암의 추억' 전람회 및 출판기념회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됩니다. 회원님과 신도님들의 많은 관람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죄의 자성은 본래 없고 마음 따라 생겨난다.

글·덕 운(德 耘)

罪無自性 從心起 죄무자성 종심기
心若滅是 罪亦亡 심약멸시 죄역망
罪亡心滅 兩俱空 죄망심멸 양구공
是卽名爲 眞懺悔 시즉명위 진참회

죄에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사라진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둘 다 공해지면
이것을 이룸하여 참된 참회라고 한다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에 있는 계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외워도 그 뜻을 진지하게 살펴보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무조건 읽고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알고 대해야 합니다.

이 계송은 인도의 유마커사께서 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계송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두 비구가 심심산 골에서 토굴을 짓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불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고 한 비구가 공부하면서 졸다가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젊은 여인이 나물을 캐러 왔다가 잘 생긴 스님이 잠에 떨어져 정신없이 자는 것을 보고 음심이 동하여 그 비구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눈을 떠보니 자기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음행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데 마침 불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반한테 사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네가 없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저 여인이 나한테 달려들어 본의 아니게 음행을 하게 하였으니 어찌면 좋겠는가?” 하니 그 도반은 노발대발하여 그 여인을 혼내주려고 뒤쫓아 가니 여인도 저지른 죄가 있는지라 두려워 도망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비구는 본의 아니게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한 비구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살생을 하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한 비구는 음계(淫戒)를 범하고 한 비구는 살계(殺戒)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대율사인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참회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율을 범하여 참으로 부끄러워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 못하고 존자님께 찾아왔으니 원컨대 저희들의 참회를 받아 허물을 면하게 해주소서”하고 말하니 우바리 존자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 율법에 있는 대로 설하여 말하기를 “너희들

은 음행하고 살인하여 바라이죄를 범했으니 참회할 길이 없다. 당장 가사와 발우를 놓고 세속으로 나가거라.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라고 말하며 두 비구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바리 존자는 계율대로 말했을 뿐이지 자기 자의로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유마커사가 옆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비결을 열어서 극악중생도 살려놓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죽은 사람을 더 죽으라고 옥박지르고 있으니 그러면 도저히 죄의 허물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커사가 우바리 존자에게 말하되 “우바리여, 이 두 비구의 죄를 거듭 더하게 하지 마십시오, 곧 바로 죄를 없애주어 마음을 요란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의 성품은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밖에도 있지 아니하며 중간에도 있지 아니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에 때가 있으므

로 중생이 때가 있고, 마음이 깨끗하므로 중생도 깨끗하며, 마음이란 것이 또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도 있지 아니하며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니, 마음이 그러한 것과 같이 죄의 때도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여 여여(如如)함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바리어, 일체의 법은 생멸하여 머물지 아니하니 환영과 같고 번개와 같으며 또 일체의 법은 서로 기다리지 않으며 내지 한생각도 머물지 아니하니, 모든 법은 모두 망견(妄見)으로 나며, 그것은 실제 없는 꿈과 같고 이지랑이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모양과 같아서 다 망상(妄想)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을 바야흐로 계율을 받는다고 이릅하며, 이것을 아는 사람을 도를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법하여 마치니 이 두 비구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풀려 크게 보리심을 발하였다고 합니다.

위 유마커사의 법문 내용과 같이

죄의 자성은 본래 없는 것이니, 다만 마음 따라 죄도 생겨날 뿐입니다. 모든 현상이 마음 따라 생겨난다는 것, 그러한 이치를 잘 알고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는 정진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비운다는데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것은 탐진치(貪瞋癡) 삼독입니다.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가 자기의 진심(真心)을 가리고 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을 짓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삼독심(三毒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독심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나’에게 맞으면 가지려는 탐심을 끝없이 일으키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멀리하며 마음속에 끝없는 악업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과 진심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치심입니다.

곧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치(癡)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와 둘이 아니요, 우주 법계와 둘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나’라는 굴레 속에 갇혀버린 마음이 바로 치심(癡心)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삼독심으로 인하여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등의 십악을 짓게 되고 그 악업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결박하여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업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참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별로 나쁜 짓한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무시이래로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겁생래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

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나쁜 죄업을 짓지 아니 하겠습니다.’라고 거듭 서원하면서 마음에 우리나라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참회를 할 때 죄업이 녹고 악업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삼독심의 근원을 잘 알아서 다시는 그것에 물들지 말고 계(戒), 정(定), 혜(慧) 삼학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독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보호하고 지키는 계행을 갖고, 분노심에 혈떡이지 않는 고요한 마음인 선정을 기르고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삼학의 정진을 통하여 삼독의 매듭이 풀리면서 업장이 녹아내리고 행복이 깃들며 깨달음의 문이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말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가

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행동들이 어리석지 않도록 눈앞의 한 생각을 잘 챙겨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생각 한 생각에 매(昧)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昧)하지 않는 마음이 그

대로 깨달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각 한 생각 깨달음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루가 진실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불기2559년 3월 초하루 법문
(2015년 4월 19일)

고양이가 보배

글 • 김정희(한국 부름의 전화 대장)

책갈피 속에서 누렇게 퇴색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해병대 옷을 입은 청년이 씩씩하게 서 있었다. 누구지? 많이 본 얼굴인데……. 아 그 청년! 20년도 넘는 세월을 밀어내며 충남 대천이 고향인 대학생이 부름의 전화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학생은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듯 했다. 그 학생뿐만 아니라 자원활동가 중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았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장애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학생 역시 넉넉하지 못한 시골 살림에 학자금을 여유 있게 보내오지 못해 먹고 잠자는 것은 물론 등록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었다. 그래서 그는 손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들은 참으로 다양했다. 백화점 화랑에서 그림을 전시하기 위하여 무거운 그림과 씨름을 하여야 했고, 주차관리, 식당에서의 잡역 등등 가지가지 일들을 했지만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자원활동을 해왔다.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언제 돈을 벌고 언제 공부를 하는지 분간할 수 없이 시간에 쪼들리니 학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설사 학점이 D학점 이하로 나왔다 해서 누가 그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책망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던 그 학생이 도저히 등록금 마련이 어려웠는지 군복무 먼저 필한

2015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5월 초청 강연 현장 스님
5월 31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살법전

법정스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티벳 사람처럼 살다가
인도 사람처럼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 '법정 선묵전'에 실은 현장 스님의 서두문 중에서

법정 스님 입적 5주기 해를 맞아 4월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일요일에는 일요특강을 진행합니다. 법정 스님과 함께하신 어른을 모셔서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5월에는 대원사 회주이신 현장 스님을 초청하여 '법정 스님의 종교 교류활동'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후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인사말을 남겨두고 훌쩍 서울을 떠나갔다.

몇 달이 흘러간 후 서해안의 경비 초소에서 모진 바닷바람에 그을린 꺼슬꺼슬한 목소리로 안부전화를 보내오곤 했다. 그럴 때면 열심히 살아 가던 모습을 상상하며 건투를 빌곤 했지만 바쁜 일과로 편지 한 장 변변히 띄우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 하면서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었는데 설을 지낸 며칠 후 그 학생이 사무실 문을 열고 불쑥 들어섰던 것을 기억한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건강과 젊음이 넘쳐흘렀었다.

“안녕하셨어유” 충청도 사투리가 보리밥 승능처럼 구수하게 들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복학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대학도 좋지만 지금 농촌은 젊은 남자가 없어 텅 비어 있어유” 느린 충청도 사투리였지만 신념과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농촌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그동안 농촌에서 보고 들었던 일들을 특유의 충청도 사투리로 들려주

는데 대도시의 오염된 공기로 찌든 나에게 공기청정기와 같이 느껴졌다.

그 학생의 고향은 50호쯤 되는 작은 마을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소농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핑 사육을 하는 사람이 이주해와 핑 농장을 하면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엄청난 투자비 때문에 핑 사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러운 시선을 핑 농장 울타리에 보내면서 어렵게 지어 놓은 곡식들을 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양이를 기르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핑이 자꾸만 없어진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짹 퍼져나갔다. 누구의 짓일까? 때문이 없어도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본 바 없었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핑 농장 주인은 몇 날을 밤을 새워 감시를 해보았으나 범인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핑 농장 주인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아마도 고양이의 짓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 핑 사육장 주변에 여러 개의 덫을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덫에 걸렸다.

완벽하게 쳐 놓은 울타리를 넘을 수 없는 고양이들은 지혜(?)를 모아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핑 사냥을 하여 수백 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핑 사육장 주인은 고양이 주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한 가구당 백만 원씩 손해 배상을 하라고 했다. 농민들에게 백만 원은 너무도 큰 금액이다. 그것도 사람이 저지른 짓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한 짓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집 고양이가 아니라고 딱 잡아 댄 수도 있고, 핑 잡아먹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그건 억울하다고 항변할 법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한 가구당 백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하고 고

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덫에 걸려 다친 상처를 정성스레 치료하며 “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고양이가 보배로구나!” 했다고 한다. 청년이 서울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간 이야기가 오래오래 내 가슴에 남아 등불처럼 어둠을 밝혀준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던 사람들이 온갖 부정과 부패로 썩어있고, 부정부패가 밝혀지면 책임을 지기는커녕 발뺌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봐 어제까지 수족처럼 함께했던 사람도 안중에 없다. 이기심이 팽배할 대로 팽배한 오늘의 사회이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고양이의 발가락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고통을 참지 못해 끄꿍대는 고양이가 안쓰러워 혀를 차는 순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잃지 않는다. 내일에 살자.

* 김정희님은 개천에 빠진 한 시각 장애인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1987년부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자원활동가가 필요할 때 전화 요청을 하면 무보수로 자원활동가가 파송되어 도움을 드리는 '부름의 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기원정사에 계실 때 국왕 등 많은 사람들이 등 공양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은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 모처럼 부처님을 뵈게 되었는데 아무 것도 공양할 것이 없구나"라고 탄탄하며, 가난하여 아무것도 공양할 수 없어 온종일 먹지도 않고 구걸하여 겨우 한 톨을 기름을 샀습니다.

기름가게 주인은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두배의 기름을 주었습니다. 기름을 사서 등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시자 아난은 등불 때문에 부처님께서 주무시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자정이 되어 등불을 끄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등은 모두 켜는데, 아난은 입으로 바람내어 난타의 등을 끄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밝아져 새벽녘까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와 지극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아난아. 그 등불은 한 가난한 여인이 간절한 정성으로 켜 것이어서 너의 힘으로 그 불을 끌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여인은 지금은 비록 가난한 모습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수미등광여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일러 '빈녀일등(貧女一燈)' 또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만 등보다 빈자의 한 등이 낫다'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동참금은 전액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반찬 나눔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면 자비의 연등 동참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이며 입금처는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 저자 윤구병



도시의 공간화된 시간, 시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인위적인 시간은 앞당길 수도 뒤로 늦출 수도 있지만, 싹트고 자라 꽃피는 생명의 시간은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의 소리를 거스릅니다. 좀 더 가난하게 사는 길, 좀 더 힘들게 사는 길, 좀 더 불편하게 사는 길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생의 길입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면 그만큼 이웃이 가난을 돕니다. 제가 힘들게 일하면 그만큼 이웃의 이마에 흐르는 구슬 땀이 곱힙니다. 제가 불편하게 사는 만큼 이웃이 편해집니다. 다 좋다 쳐도 가난은 지긋지긋하다고요? 강요된 가난은 그럴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는 가난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나눔을 가르쳐 줍니다. 잘 사는 길은 더불어 사는 길이고,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사는 길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는 윤구병이 걸어왔던 인생 역정, 특히 변산 공동체와 이후의 10여 년에 대한 기록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연과 인간, 생명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안겨준 그의 지나온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1995년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전북 부안으로 낙향하여 '변산교육공동체'를 설립하여, 그가 꿈꾸어왔던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 농부 철학자입니다.

자연에서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고 농사에 '일머리가 쌓이면서, 공동체의 사람들은 도시의 시간을 벗어나 생명의 시간에 익숙해져 갑니다. 또

한 모든 안전을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 해결함으로써 갈등을 미운 정, 고운 정으로 녹여내게 됩니다. 정은 사랑보다 너그러우며, 행복은 기쁨보다 큼니다. 즐거움과 슬픔, 힘겨움을 고맙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생명의 시간에 순응하면서 더 불어 사는 삶입니다. 윤구병은 그것을 '좀 더 가난하게, 좀 더 힘들게, 좀 더 불편하게' 살면서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법정 스님 또한 2007년 8월 여름 안거 해제법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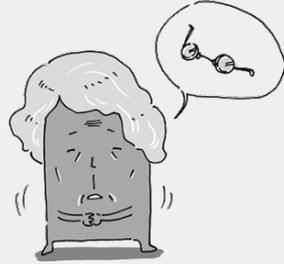
“소욕지족 소병소뇌(少慾知足 少病少惱), ‘적은 것으로서 넉넉할 줄 알며,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 적은 것으로서 넉넉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맑은 가난

이란 남이 갖은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맑은 가난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자 할 때 먼저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내 이웃이 갖지 못했는데 나만 혼자 많이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이웃이 가져야할 것을 가로챈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법문하셨습니다.

삶의 지혜를 주는 글, 함께 나누고 싶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 본모임과 뜻을 함께하고 싶은 분의 여러 원고를 기다립니다.

clean94@hanmail.net

어머니의 흰머리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칠순 노모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습니다. 맛별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은 통째로 눈 침침하고 허리 굽은 칠순 노모의 차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노모가 차려준 저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노모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나 돋보기 하나 사야 할 것 같다.”

생전 당신 입으로 뭐하나 사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다 신문 한 장 볼 수 없는 까막눈인 어머니가 돋보기를 사달라니 웬일인가 싶었지만, 아들은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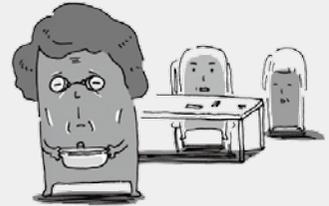
다음날 저녁,
먼저 퇴근한 아내가 막 현관에 들어서는데 남편에게 다카와 호들갑을 떨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늣바람 나셨나 봐. 어제는 안경을 사 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염색까지 하셨지 뭐야?”
아내의 너스레에 아들은 볼멘소리를 던집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왜 안 하던 일을 하신데?”
아들 내외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노모는 멧쩍으신지 모른 체 하곤 부엌

으로 갑니다. 그리곤 언제 장만했는지 돋보기를 끼고 쌀을 씻습니다. 머리는 그런 노모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남자친구가 생겼나 싶어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탁 앞에 아들 내외가 앉자 어머니가 먼저 침묵을 깬다. “안경은 내가 장만했으니, 인자 됐다. 엇그제 느그 아들 밥그릇에 흰머리가 하나 들어갔나 보더라. 애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인자 안경도 끼고 머리도 염색했으니 그럴 일 없겠지.”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가 왜 돋보기를 사달라고 하셨는지, 하얗게 센 머리를 왜 염색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죄송함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인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늘 바라기만 했을 뿐, 어머니의 머리가 온통 백발이 된 것도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 '따뜻한 하루'



* 이 달의 명언 *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 장자

가족의 의미

글 • 이경숙(수필가)

가족이란 뭘까? 그 가족들이 모여 구성된 가정은 또 뭘까?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족'이나 '가정'이 아닌 가 싶다. 누군가에게는 인식처인 가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울가미가 될 수도 있고 족쇄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면 각 가정의 생활방식이나 부모들의 교육방법,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답이 다르다.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가정이 최고의 공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저 그런 곳'이거나 심지어는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 중 중학교 1

학년인 지은이는 <가족입니까>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 후속 프로그램을 할 때 가족의 의미와 바람직한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가족이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다. 힘들고 지칠 때는 가족이 먼저 생각한다. 바람직한 가정은 가끔씩은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서로의 탓만 하면 안 되고,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진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대화를 할 때는 서로에게 과도



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다소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어머니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실제 체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지은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 그러다 보니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 어머니를 최우선에 둔다. 그런데 <가족입니까>라는 책에 나오는 어머니가 어머니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고 판단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딸을 통해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은이의 눈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라 '매니저'로 보인다.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대신하여 모든 걸 도맡아 처리한다. 어머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자신이 대신해주고, 오디션도 알아봐주며, 심사위원 앞에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동안 어머니가 쌓아온 스펙을 일일이 읊는다.

지은이는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어머니가 어머니 비슷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는 당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어머니를 믿어주고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어머니 뜻대로만 하지 말고 어머니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등, 예린이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예린이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예린이 자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지은이가 공부하는 동안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 '자녀들의 홀로서기'다. 지은이는 홀로서기가 왜 필요하며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썼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공주 왕자 대접하면서 떠받들어주면 그 자식은 커서도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다보면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예린이는 엄마의 로봇이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린이는 홀로서기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르쳐줘야겠지만 열두 살부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인생에서 영원한 동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그 정도가 과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발 벗고 나가기 일쑤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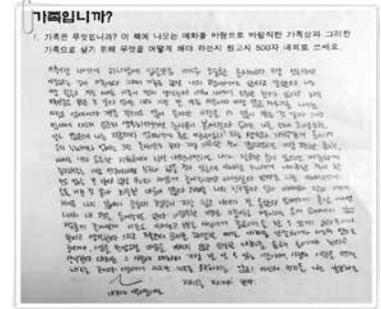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도가 지나치게 자식을 섬긴다는 생각들이 때가 있다. 미술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몇 시간을 내리 매달려야 완성할 만한 그림이었다. 그런데 친구는 하루 만에 완성했다. 완벽했다. 다들 감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물었더니 엄마가 대신 해줬다며 엄마의 미술솜씨까지 칭찬한다. 참 황당했는데 그 친구는 그걸 자랑한다. 엄마가 대신 해줄 테니 시험공부하라고 했단다.

자기 아이 공부할 시간을 벌여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대신 해주는 엄마도 있다. 자녀가 성공하면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정도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켜봐주어야 한다. 실패도 겪어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예린이 엄마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의 실상을 폭로한다. 홀로 설 수 있게 키우지 않고 지나치게 자식을 섬기다 보니 무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하다. 지은이는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부모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많은 엄마들은 자녀들의 수행평가 과제를 대신 해주고 봉사활동도 대신 해준다.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 미술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쓸데없는 시간으로 인식하거나 귀한 자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다.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한다는 것이다. 실패도 경험이며 실패를 통해서도 삶을 배우기 때문이다.



지은이가 말한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도 의미심장하다.

“바람직한 가정은 가끔씩은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상대방 탓만 하면 안 되고,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진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대화를 할 때는 서로에게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다소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버릴 말이 없지 않은가.

5월 결연대상자 - 김정희(가명) 님

처음 뵈 때부터 한눈에 어르신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팔다리가 옷에 걸쳐져 있는 듯 가녀린 몸은 앞으로 굽어 있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망막 수술로 초점 잃은 오른쪽 눈은 4급 판정을 받았고 왼쪽 눈으로만 희미하게 사물을 구분합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하여 생기를 거의 느낄 수 없었지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주어야 하건만 그러질 못해 14년째 투석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 먹을 때 외에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 노폐물은 사우나에 가서 땀으로 배출해야 하지요.

어르신의 팔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혈액 투석을 위해 팔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놓은 동정맥루 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요. 투석을 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피를 빼 노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깨끗해진 피를 몸속에 다시 집어넣어 주어야 하지요.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정맥루 수술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커진 혈관이 피부 위로 솟아 나오게 되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올해 65세로 술주사 심한 남편과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세 딸 중에 둘째와는 10년 전에, 셋째와는 7~8년 전에 헤어져도 든든한 장녀의 보살핌이 있었

지요. 하지만 사위가 추간판 탈출증 일명 허리디스크로 아픈데다가 생계를 책임지던 장녀마저도 같은 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빚이 3,300만원이 되고 맙니다. 갚지 못하니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지요.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은 3년 전에 홀로 나와 생활하시게 됩니다. 따님이나 사위가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둘이 매일 싸우는 모습을 더는 어르신은 지켜볼 수가 없으셨지요. 다섯 식구가 14평짜리 집에서 살다 보니 어르신은 베란다에서 눈치 밥을 먹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을 나갈 때는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나오고 보니 눈치 볼 사람이 없어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먹은 것도 소화되지 않았기에 체중이 34킬로까지 빠지셨지요.

고통스러웠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장위동에서

2년을 살고 작년 5월경에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수급권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구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내 집이 생기니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파도 마음이 편하니 살이 붙었습니다. 체중이 43킬로까지 늘었지요.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올 3월부터 생활수급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그대로인데 20만 원 가까웠던 생계급여가 2만 원대로 깎였습니다.

줄어든 수급비로는 투석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올 수가 없어 걸어 다녀야만 합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밥을 다 하고 나서는 코드를 뽑아 놓습니다. 밥은 밥그릇에 담아 찬밥을 드시지요. 우울증이 심해 8년 전에 농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더라며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십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1,150원의 버스비가 되어주시고 월 1만 원의 전기세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0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좋은가?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 km²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km²밖에 되지 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73억여 명(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 357,200여 명이 태어나고, 146,13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도 다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사람, 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과 행동양식도 다양각색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온 사람들은 생활양식이나 언어, 문자, 기호, 관습에서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에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지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구의 주인 노

릇을 하다 보니 마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작은 미생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과 혼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큰 아파트에 사는지, 누가 더 유명브랜드를 입고 누가 더 비싼 장식품으로 치장하고 있는지……. 무한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미모로 이렇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과 고통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학교가 생겨나고 병원과 시장과 관공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만든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며 제도며 정책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작동하고 있을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실현되어야 할 이런 제도며 장치들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며 정책이며 법이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특권이 주어진 사회, 다수가 고통을 누리는 대가로 소수가 행복한 사회는 공정한 사

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닌 전근대적인 계급사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교육기간 동안 평생 살아갈 지식과 건강을 배우고 체화해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사법기관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 사회정의를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힘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못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미안해하고 가엽게 여길 줄 알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참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든 이유는 물물교

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의 희소가치 때문에 돈과 사람의 가치가 뒤바뀌는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에 몸에 해로운 방부제를 넣거나 식품첨가물을 가미해 맛 속임, 눈속임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놀이기구에게까지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됴됨이가 아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허세를 떨고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이만큼 잘났는데, 너보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보다 지위가 이만큼 높은데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군림하고, 몰라도 아

는 체, 없어도 있는 체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물학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심이나 식욕과 수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가 하면 귀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그래서 희소가치를 선호하는 욕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정치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다 보니 이런 반칙이 판을 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고, 바꾸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입니다. 정치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

는데, 그 순리를 따라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가 순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쫓다보니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 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좀 더 잘 먹고 더 즐기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무한경쟁과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요?

공감대화 네 번째 항목 ‘부탁’

글 • 고희희 (공감대화 개발원장)

여러분은 부탁을 받고 거절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때 거절하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미안하고, 불편하셨나요? 부탁하였던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당황하거나, 화난 느낌이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부탁을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거절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상대가 거절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실 수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공감대화 할 때의 네 번째 항목 ‘부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부탁’은 공감대화의 4가지 항목-상황, 느낌, 바람, 부탁-중에서 마무리를 할 때의 항목입니다. 만약 특별히 부탁할 것이 없다면 생략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지난번 예에서 시를 좋아하는 학생이 친구를 12시에 서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서점에서 읽고 싶었던 시집을 충분히 읽은 후 30분 늦게 온 친구를 보았을 때, ‘고마워! 네가 30분 늦게 와서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어. 읽고 싶었던 시집을 읽었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부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부탁’ 항목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는 친구를 초조하게 30분을 기다렸다면, ‘널 기다리느라 30분 동안 초조했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거든, 늦으면 연락을 꼭 해줄래?’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늦으면 연락을 꼭 해줄래?’가 부탁입니다. 이 부탁에 따

른 ‘바람’을 넣어서 말한다면, ‘늦으면 연락을 꼭 해줄래? 그러면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거든.’입니다.

부탁은 질문형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부탁의 말, ‘~해 주세요.’ 보다 더 바람직한 부탁은 ‘~해 주시겠어요?’ 혹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세요?’입니다. 부탁을 질문형으로 한 후에는 답을 듣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을 할 때는 긍정적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소리로 인하여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떠드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 대화법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평가하여 말하는 것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찾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은 주눅이 들고,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도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긍정적 부탁으로 말한다면, ‘뉴스 소리를 잘 듣고 싶은데, 조용히 말하며 놀면 어떨까?’입니다. 공감대화법에 충실한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히 생각하면, 아이들은 지금 말하는 것이 크지 않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하며 말한다면, ‘뉴스 소리를 잘 듣고 싶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작게 말하며 놀면 어떨까?’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아이들은, ‘네하고 말소리를 줄이면서,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투를 따라하고, 배우게 되어 저절로 공감대화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밀하게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하도록 노력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처음 볼 때부터 반말을 하는 상사에게 '저를 존중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존중하지 않았어?'라는 반문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때는 '제가 반말하시면 듣기 힘듭니다. 존대로 말해주시겠어요?'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탁에 자신의 '바람'을 넣어서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바람'을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명령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부탁하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건방지게 들릴까봐 걱정됩니다. 부탁드리기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겠어요? 제가 존대로 말해주시면 듣기 편하고, 마음 열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존대로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신책가자고 상대에게 부탁하

였을 때 상대는 부탁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말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상대가 거절을 하였다면, 상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 '많은 할 일 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진정한 부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요한 것입니다!'아, 할 일을 하고 싶은 것이로구나!하고 흔쾌히 거절을 이해할 때 부탁한 것입니다.

부탁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상대가 거절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거절에 솔직하게 말해주시고 고마워!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거절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의 목적은, 솔직함과 공감에 기반을 둔 인간 관계를 만들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탁하였을 때 거절을 받는다면 상대가 나를 신뢰하는 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거절한 것을 상대가 흔쾌히 받아들일 때 상대가 내게 부탁한 것이며, 내 거절을 불쾌해한다면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강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안함, 두려

움, 거북함, 수치심 등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굽아 터지는 종기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타인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타인을 배려할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부터 매일매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공감대화는 총 6회 연재됩니다. 다음 6회에는 실생활에서의 활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참배객 유의사항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불자들의 기도처입니다. 최근 봄나들이로 많은 분이 길상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신도님과 참배객께서는 사찰 방문 시 유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어 수행은 물론 마음의 쉼터로서 모든 불자가 자랑스러워할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치게 노출된 옷(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소매 없는 상의 등)이나 슬리퍼를 신고 경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으로 애완동물, 자가용, 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 도량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러운 행동, 지나친 애정표현을 자제해 주십시오.

아리랑 소고(小考)

글 • 강인철(회원,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강사)

해외동포 위문공연을 다녀왔다. ‘한국의 날’을 맞은 교민들의 잔치마당은 어디서나 비슷한 느낌이다. 한복을 차려 입은 여인들의 매무시가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고, 커피대신 한 잔 술에 떡과 김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떠들썩한 모습도 여전하다. 그리고 장내에는 ‘아리랑’ 멜로디가 흐르고 삼삼오오 모여든 동포들도 서로 오래간만인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중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베를린에서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차림에 동일한 분위기였던 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이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한인회(韓人會)회원들과의 첫 만남은 참으로 낯달랐다. 형제도 일가친척도 아니건만 쩡~하게 저러오는 가슴앓이 라

나... 뿐만 아니라 위로공연 내내 울먹일 듯 감격해 하던 모습도 그러하거니와 귀국길 공항에서의 헤어짐은 기어이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손에 손잡고 혹은 얼싸안으며 ‘아리랑’을 숨죽여 노래했다. 가슴 벅찼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겁다.

아리랑은 지구촌 어디서나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였으며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아리랑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일까? 하나의 민요조 노랫가락을 넘어 민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춧돌로써 도도한 ‘겨레의 냇이 거기 배어있는

건 아닐까?

그런 아리랑을 옛 분들은 일정한 틀에 묶어두지 않았다. 오랜 세월 터득한 삶의 지혜를 바탕 삼아 멋진 응어리를 풀어내는 데서 아리랑의 매력을 유지하려 애쓴 흔적이 곳곳에 절절하다. 그래서 한(恨)의 노래라 단정 지은 학자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성 싶다. 한과 함께 신바람의 양면성이 함께 녹아있기 때문이다.

3박자 ‘세마치 가락’으로 짜여진 아리랑은 지방에 따라 창법과 노랫말이 조금씩 달라 60여 개의 다양한 곡조에 각기 다른 가사가 3백5십여 수나 전해오고 있다는데 내용은 대개가 삶의 애환에 사랑과 이별을 덧붙인 게 대부분이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비통했던 겨레의 울분을 대신 토해줬고, 열사의 땅에서 일할 땀 향수를 달래준 노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올림픽 제전에서는 이념의 벽을 넘어 남북 단일팀 단가(團歌)역할도 했고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국

민적 응원가가 되어 한국인의 신바람이 무엇인가를 전 세계에 뽐내기도 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고 있는 아리랑이건만 그 유래가 명확치 않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중 하나다.

밀양 영남루에 얽힌 아랑아씨의 사연에서 비롯됐다는 아랑설(我狼說)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아리랑설(我理郎說)을 내세워 아(我)는 참 나를 의미하며, 리(理)는 이치를 깨닫는 뜻이고 랑(郎)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참 나를 깨닫는 즐거움’을 노래로 읊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또 전국의 지명에 나타난 ‘아리랑 고개를 아리령(嶺)으로 풀이한 경우도 있는데 ‘아리는 순수 우리말에서 ‘밝음’을 뜻하였으므로 북방에서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 이주해 오던 옛 조상님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새로운 땅 한반도에 이르러 환~하게 내려다보이던 고갯마루를 아리령이

라 불렀으며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노래한 것이 '아리랑(랑)타령'이라는 주장이다.

아리랑의 유래가 아직도 설왕설래 되고 있음이 안타깝기는 하나 좌우 간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망향가의 대표곡으로 불려지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러시아에서는 '키르쿠츠 아리랑'으로, 재미한인사회에서는 '민들레 아리랑'으로, 재일동포들은 '아리랑 야곡'으로 각각 교민들의 삶 속에 저마다 개성 있게 밀착되어 함께하고 있다.

1988년 11월, 유네스코는 <인류의 구전 문화유산 선포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의 보전 및 전승에 공로가 큰 인물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고 있다. 그 상(賞)의 이름이 자랑스럽게도 <아리랑 상>이라 명명되어 있어 이는 곧 우리나라가 구전 문화유산의 메카임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대단한 명예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토록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아리

랑을 주제로 하여 다음기회엔 사할린 동포를 찾아가 보고 싶다. 부끄러운 역사의 뒤편길에서 이제껏 그분들이 겪었을 서럽고 애통했던 멍든 가슴에 기쁨과 희망의 등불을 밝혀 드리고 싶어서이다.

...아리랑고개는 열 두나 고개 /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나네... 이는 그분들이 소신적에 불렀을 한 서린 아리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공연의 서막은 열 되, 마무리만은 모두가 신명 나게 하나 될 수 있는 신(新)아리랑과 '사물놀이'로 동포들에게 흥겨운 판을 선사할 것이다.

그런데 사할린 공연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요모조모 생각을 다듬어보는데도 벌써부터 눈자위가 뜨거워지고 있으니 이젠 치료약도 없는 '마음병'이라 그제 탈(?)이다. 아내가 한 마디 거든다. '당신은 걱정도 팔자인가 봐~?' 라고... 하지만 아리랑을 생각하면 울컥 치미는 불덩이가 가슴팍에 녹아드는 걸 어찌하랴!

마지막 출근

글 • 김동신(회원)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몰랐던 바 아니지만,

이 몸을 인하여 아내를 만나 일가를 이루고 먹이를 구해 식물을 건사하였으나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묶여 나를 치열했지만 더러는 흔들렸고, 더러는 비굴했다

우리하게 저러오는 통증 같은 삶의 마디마디를 진통제 없이 견뎌온 세월...

오늘은 마지막 출근 날, 나만의 귀거래사를 읊을 수는 없으나 "아버가 먼저 가고

자식이 남는 게 순리이듯" * 나이 들어 물러감은 세상 빠삭한 이치 아닌가

뜬구름 한 조각이 모였다 흩어지듯 잊고, 잊혀지고 제행이 무상함을 모르다 해도 더는 내 인생에 미안해 말지니 익숙함과 이별을 낫설어만 하랴

마지막 퇴근 길, 비로소 내가 나이를 영혼은 부디 청정하기를!

* 영조가 세손 이산과 나눈 회한의 마지막 대화 (SBS드라마/비밀의 문/마지막 회)

* 직장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시의 형식을 빌려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어설픈 시 한편이지만, 직장에서 은퇴하고 인생2장을 펼쳐가야 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스승님! 다음 생에도 여여(如如) 하시지요.

글 • 雲上月

오십 대 초반부터 서울 생활을 접고 자연에 내려와서 따뜻한 흙에 엮드려 좋아하는 나무와 야생화를 키우며 들꽃처럼 살았다.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 산본 살 때 마음 놓고 들여다 본 사찰이 성북동 길상사다. 평소 법정 스님을 무척이나 존경하였기에 일부러 찾아간 정신적인 의지처였다. 매주 목요일은 후원에 들어가서 대중들의 점심공양을 거들었고, 큰 행사가 있을 때면 많은 먹거리들을 내 일처럼 알뜰히 하였다. 무엇보다 강원도 먼 오두막에서 간간히 법회하러 오시는 어른스님을 먼발치에서 친견할 수 있는 날이면 더 없이 좋아서 즐겁게 다녔다.

아득한 옛날 초심자일 때다. 찬한도

빈과 삼청동 법련사 가을법회에 가서 난생처음 '법정 스님' 법문을 만났다.

“쌈 하나 찾거든 그곳에 안주해라.”
“말뚝 신심 내지마라.”

“말 한번 뱉으려면 세 사람을 생각해라.”

처음 듣는 말씀인데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처럼 어려운 법문이 아니고, 쉽지만 분명하셨고, 승가의 절제가 몸에 배인 듯 곳곳한 느낌이며서 특유의 유머로 재미도 있었다.

전라도 어디... 불일암! 그때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암자에서 오셨단다.

“불교에도 이런 스님이 계셨구나!” 난 한마디로 가슴이 뛰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지막한 법련사 처마 밑 주위로 빼곡 빼곡 어느 틈이든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인산인해

를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다.

그날 법정 스님 법문 한자락 듣기 위해 모인 그 많은 대중은 다 불교인이 아니었는데, 하얀 고무신을 신고 서울 나들이를 한 번씩 하실 때면 늘 그렇다고 도반 친구가 말했다.

온종일 친구 덕에 너무나 신선한 느낌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러서 법정 스님 저서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고, 오랜 세월 부동심(不動心)으로 '무소유' 삶을 살아가신 스승님을 한없이 존경하면서, 모자란 마음은 들꽃이 좋아서 자연에 내려놓고 산다.

오래전 서울 가는 길에 길상사에 들렸더니, 낡은 건물로 누수가 되던 소법당 불전이 지장전으로 바뀌는 새 불사가 완성되고 있었다.

주지스님께 말씀드려 그동안 틈틈이 잘 키운 반송 열 댓 주를 지장전 정원에 심기로 하고, 이삿짐 탐차를 불려서 조경 소나무를 가득히 길상사로 실어 내었다.

‘저 여자가 무슨 나무야?’ 알곳은

소릴 다 들어가면서 허허로운 밭에서 손마디가 갈퀴리가 되도록 풀더미와 섞여 씨웠는데 자식 같은 소나무를 우연히 지장전 길목이라니 보람이었다.

기쁜 마음에 먼발치에서 한없이 존경하던 법정 스님께 편지를 썼다.

나만의 호칭은 뭐라고 하지? 약간 고민했다. 오대산 깊은 산골 오두막에 계시니 절에서 부르는 어른스님이란 존칭은 빼고 '산골스님'이라고 편하게 썼다.

“산골스님, 저는 강릉으로 귀촌을 하여 조경 소나무를 잘 키워서 매마침 지장전 뜰 불사에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대견하여 감히 편지를 드립니다.”라고.

그런데 한참 후 어느 날 집배원 아저씨가 노란 소포를 가져왔다. 웬 소포인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얼른 봉투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법정 스님께서 보내셨다.

그토록 멀리서 바라만 보던 법정 스님께서 채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와 책갈피에는 분홍 봉투에 예쁜 난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맑고 향기롭게

‘2030 문화와 함께하는 푸른 모임’

「맑고 향기롭게」중앙모임에서는 40~50대 이상의 회원님이 주축이 되어 맑고 향기로운 활동(말반찬 나눔, 전화 말벗, 의류리폼, 녹색나눔장터, 각 시설 자원활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의 참여와 활동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맑고 향기롭게 회원 또는 길상사 신도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 중 20대에서 30대 청년들간의 문화 만남을 통하여 차후 봉사활동까지 펼칠 '2030 푸른모임'을 지난 4월 25일 첫모임을 가진 후 새롭게 꾸려가는 중입니다. '푸른모임'의 명칭은 법정 스님께서 지어주신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의 초창기 이름으로 긴 휴식기간을 갖고 있는데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의미도 있으니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왜 모여?

중앙모임에서는 마음사업의 한 부분으로 소규모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2030 푸른모임을 통하여 장애인 및 소규모 문화단체를 지원하면서 청년회원들간의 교류도 함께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바꾸어나갈 청년들의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생동감 있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 누가 모여?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또는 자녀 중 20~30대 넘어
- 모여서 뭐하지? 5월부터 매월 한 번 정도 연극 및 공연 관람
- 참가비는? 공연 관람료의 평균 1/3만 본인 부담(나머지 금액은 협찬 및 후원)
- 접수는?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사무국02741-4696으로 전화 및 방문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알람 참조(www.clean94.or.kr)

초 우표를 일부러 붙인 두 장의 편지였다. 손수 육필로 쓰신 스님의 향기를 꺼내어 읽으며 가슴은 견잡을 수 없이 떨리고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다.

그 동인의 힘든 세월을 다 보상이라도 받는 듯, 감동의 편지를 가슴으로 받은 것이다. 때로는 적막한 시골 살아가 춥고 외로워도 이것 또한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 최선을 다했는데, 뜻밖에 법정 스님의 선물이 라니 생각하면 꿈속인 듯 황홀하고 무슨 말로든 표현이 안 되는 이상의 나날이었다.

또한 법정 스님께서서는 자연의 소중함, 자연의 질서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간소한 오두막 생활을 자연 그대로 단출한 언어로 산문집을 엮어내심이 아주 특별하셨는데, 그 보물 같은 새 책을 출간 하실 때마다 첫 장 너머에 <雲上月(운상월)보살님에게 法眞> 가장 멋지게 싸인 하시고 책갈피엔 담박한 엽서에 안부를 꼭 넣어서 열반하시기 전까지 몇 권의 책을 더 보내 주셨다.

둘레의 나무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파지에 써 보낸 편지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맑은 바람 불면 만날 수 있지 헤어립니다.

언제나 깊은 마음은 인자하시고, 햇살같이 따뜻함을 안겨 주셨다. 나는 대단히 부끄러운 줄필이지만, 나무를 키우면서 야생화 소식을 수련 피는 마당에서 물어보고 공감하면서 더욱 소중하게 답장을 드렸다.

아~ 다음 생 어디에 가면 스승님 같이 아름다운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산골스님 어디에 계시는지요.

진영각 뜰에 왕자별 님은 꼬마 탐과 거룩한 청매화 꽃눈마저 스산하고 처마 아래에 떠는 외로움은 파스 한 별 한 자락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스승님! 명울진 그리움은 눈부신 계절도 가슴이 시립니다.



2015 숲기행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찾아서

6월 6일 남한강 일대의 자연환경과 폐사지 탐사

고달사지와 그 일대의 우두산 숲 탐방 ⇒ 흥법사지 ⇒ 법천사지 탐방 ⇒ 역사문화순례길(편도4km) 숲과 문화 탐방 ⇒ 거둔사지 탐방

7월 4일 부여 부소산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탐방

보령 성주사지 탐방 ⇒ 전통연못 공남지 탐방 ⇒ 정림사지 탐방 ⇒ 부소산성, 고관사 및 부소산의 자연생태탐사

8월 1일 충북 하늘재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탐방

중원 미륵리 사지 탐방 ⇒ 속리산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및 우리나라 최초의 고개길(하늘재역사관찰로)의 자연생태 탐사(왕복4km) ⇒ 사자빈신사지 탐방

9월 5일 영주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흔적들

부석사 탐방 ⇒ 부석사 주변의 숲 탐사 ⇒ 소수서원과 숲 그리고 선비촌 탐방 ⇒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 풍기의 특산물 탐방(인삼시장)

10월 3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성보박물관 ⇒ 가야산 국립공원 숲 탐방(편도2km) ⇒ 해인사 ⇒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 황매산 주변 자연환경 탐사(왕복2km)와 영암사지 탐방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65세 이하
- **접수**: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부터 전화접수 (02-741-4696)
- **준비물**: 개인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울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산 준비)
- **참가비**: 4월 ~ 6월 참가비: 회원 30,000원 / 비회원 35,000원
7월 ~ 9월 참가비: 회원 35,000원 / 비회원 40,000원
(10월은 일정 확정에 따라 참가비 재공지하며, 11월은 봉사자를 위한 숲기행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비 환불 원칙**: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후원금 처리 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참가비 입금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말고 향기롭게)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하는

말고 향기롭게 캠페인 안내 및 봉사자 모집

불기2559(201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본 모임은 당일 친환경 체험마당, 녹색나눔장터,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말고 향기롭게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친환경 체험마당으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품 만들기,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녹색나눔장터에서는 의류리폼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리폼용품, 천연 화장품, 도서 등이 새로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와 장터에 동참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길상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봉사의 손길 또한 기다립니다.

2015년 '말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거행하였습니다.

'말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4월 17일 길상사 살법전에서 열렸습니다. 장학생은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회원, 지역모임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며, 뛰어난 성적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22번째 이어지고 있는 '말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금'은 길상사 창건주인故 길상화 보살의 불명과 법정 스님이 창립한 '말고 향기롭게' 정신에서 따온 명칭으로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30여명에서 11명이 늘어난 4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의미를 더했으며, 덕운 이사장님은 앞으로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수혜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라 밝히셨습니다. '말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금'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총555명의 학생들에게 총 8억여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길상사 안내와 더불어 길상화보살의 공덕비와 법정스님 진영각을 참배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녹색 나눔 장터 참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을 판매하고,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녹색 나눔 장터'를 길상사 경내에서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장터에 참여하실 분은 새 물건이 아닌 중고물품이여야 하고, 수익금의 20%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 줄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말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결식아동 밀반찬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말고 향기로운 반



찬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참여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 리폼 봉사팀에 함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이 나 디자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진인노인요양원 정기봉사 활동

진인노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봉사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단 보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거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일(금)/오전 10시 ~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5월 31일(다섯째 일) 오전 11시/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목, 금요일 (1,7,8,21,22,28,29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감치 나눔 : 3월~11월 둘째 목요일(4일)/맑고 향기롭게 반찬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매주 월요일(4,11,18일)/오전 10시~오후 2시/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모회원(차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 : 첫째 일요일(3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6일)/오후 1시 30분/삿달타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6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 5일(어린이날), 25일(부처님오신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6,13,20,27일(수) 오전 10시(삼풍,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2,19,26일)/세계일화실
- 녹색 나눔 장터&친환경 체험마당: 5월 25일(넷째 일) 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 강의/12시 1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양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양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

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광주모임에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창립을 개원하였습니다.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연등 점등식

- 일시: 5월 2일(토) 저녁 7시 30분
- 장소: 극락전 앞마당

**극락전 아미타부처님 개금불사 및
협시보살 점안법회**

- 일시: 5월 3일(일) 오전 9시
- 장소: 극락전

다라니기도

- 일시: 5월 2일(토) 오후 8시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5월 9일(토) 오후 8시 30분
~5월 10일(일) 새벽 3시 30분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주말 선 수련회

- [226기] 5월 16일(토)~17일(일)
- [227기] 5월 23일(토)~5월 24일(일)
- 장소: 설법전
- 참가비: 5만원

춘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5월 3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봉축,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부처님 오신 날이 좋은 날이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깨침과 은혜를 입고 게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거듭거듭 고마움과 다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스님 법문 중에서)

- 일시: 5월 25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국악 명상음악가 김영동과 함께하는
길상 음악회**

- 일정: 5월 25일(월) / 저녁 7시
- 장소: 길상사 프락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뜻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종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극락전) 연등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영가등	3만원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하안거결제	6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6월 6일	오후 8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6월 13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6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 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6월 1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법정 스님 5주기 추모 행사로 고현 교수님 작품 전람회 '불일암 추억'과 수필집 '법정 회상기' 출판 기념회를 가집니다.

고현(高鉉) 조선대 교수(미술대학 디자인학부)는 '불교 미술의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를 하두로 40여 년을 정진해 왔으며, 1981년 봄 법정 스님과 불일암에서부터 첫 인연이 닿아 본모임 초창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캐릭터)'를 도안하였으며, 현재

맑고 향기롭게 광주 모임을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늘 밝은 미소로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30년 회고집 '법정 회상기'는 그가 얼마나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아끼고 사랑하며 마음을 비워버린 상태에서 오직 법정 스님의 유지를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불일암 추억'이라는 전람회를 더하여 회고집을 법정 스님 영전에 바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발원하는 바입니다.

